

2野 광주·전남 의회 의장단 선거 신경전 치열

광주시의회, 더민주 “국회식 배분” 국민의당 “자유투표제” 전남도의회, 더민주 이용재-국민의당 임명규 양자 대결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전례없이 ‘국회식 배분방식’의 원구성을 국민의당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더민주 중앙당이 최근 ‘지방의회 의장단 구성 아홉 금지’를 주요 골자로 한 공문을 시당에 내려보내는 등 의장단 선거를 놓고 양당 간 치열한 신경전이 전개되고 있다.

23일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제20대 총선과 함께 지방의회가 일당독점에서 벗어나 더민주와 국민의당간 양당 체제가 구축되면서 오는 7월에 예정된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광주시의회는 더민주 13명, 국민의당 8명, 무소속 1명이다. 광주 총선에서 참패에도 불구하고 더민주가 시의회 1당

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더민주의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기존 자유투표 방식을 벗어나 국회를 준용한 원구성을 국민의당에 요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내 의장 1석, 부의장 2석, 상임위원장 5석 등 8개 자리를 의석수에 따라 5대3 비율로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제1당으로 의장 자리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석수가 열세인 국민의당은 더민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현 의장을 지지했던 그룹인 주류측 12명이 국민의당 중심으로 뭉쳐 있기때문에 과거처럼 자유투표제를 고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13명 중 4명은 더민주 소속으로, 일부 의

원들은 개인적 친소관계나 과거 약속 등을 이유로 당적을 떠나 주류측에 합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은 더민주가 국회식 배분방식을 당론으로 정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탈당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더민주 중앙당이 하반기 지방의회 의장단 구성을 앞두고 ‘내부 단속’을 위한 지침을 지역 조직에 통보해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광주시당에 따르면 중앙당은 최근 총무본부장 명의로 ‘광역·기초의회 (부)의장 선출에 관한 지침’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국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에게 보냈다. 중앙당은 ‘준수사항’이라고 강조하면서 기초의회는 지역위원장, 광역의회는 시·도당 위원장 참관 아래 소속 지방의원들이 민주적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하도록 했다.

금품·향응 제공, 다른 정당과의 아합이 없도록 관리·감독하고 사전 선출된 당 후

보가 선임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이는 2010년대 들어 반기별 의장단 구성 때마다 비슷한 지점이 내려왔지만 더민주가 이번 20대 총선에서 광주 등 호남에서 참패한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인 지방의회 주도권까지 빼앗길 수 없다는 다급함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한편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후보로는 더민주에서 조오섭·김보현·김영남의원, 국민의당에서는 이은방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남도의회도 하반기 의장 선거도 더민주 이용재 의원과 국민의당 임명규 의원간 양자 대결로 치러질 전망이다. 재선인 임명규 의원은 23일 제1부위원장 후보 권욱(국민의당) 의원과 러닝메이트로 출사표를 던졌고, 역시 재선인 이용재 의원도 이미 의원들에게 출마 사실을 알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전남도 농수산물 700만달러 수출 계약

7개국 초청 수출상담회

최근 전남산 농수산물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높을 가운데 전남도가 개최한 수출상담회에서 지역 농수산물기업들이 700만 달러 이상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농수산물 수출 확대 및 신규 거래선 확보를 위해 중국, 미국, 일본 등 7개 나라 17명의 해외 바이어를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729만 달러어치의 계약을 맺었다. 수출상담회에는 전남지역 64개 농수산물 수출기업이 참가했다.

수출상담 결과 고흥 한성푸드가 유자차 310만 달러, 나주 완도물산이 조미김 83만 달러, 나주 골든힐이 젓갈류와 김치류 80만 달러, 담양 안복자한과가 한

과류 40만 달러, 나주 좋은농조합법인 이 기능성음료 37만 달러, 목포 대창식품이 조미김 30만 달러 등 18개 농수산물 수출기업이 성과를 거뒀다.

현장에서 계약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180여 건의 수출상담이 진행되고, 바이어들의 수출기업 현지 방문을 통한 추가 상담도 계속돼 추가 실적도 기대된다.

이번 농수산물 수출상담회는 전남도 중소기업지원센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전남지사, 전남도 해외통상사무소 등과 연계해 이뤄졌다. 특히 전남도 FTA 활용지원센터에서 관세사와 원산지관리사를 현장에 상주시켜 수출 애로사항 자문을 진행, 참가 기업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유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김동찬 광주시의회 부의장

대한민국 신지식인 선정

광주시의회 김동찬(북구 5) 부의장이 대한민국 신지식인에 선정됐다.



2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김 부의장은 전반기 의정 활동 기간 창의적인 정책개발 등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7회 신지식인 인증식에서 지방자치의회 공무원 분야 신지식인으로 선정됐다.

김 부의장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사업, 청년 기본·사회적 일자리·주차장 조성 제정 등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동해에 대한 일 본해 표기 폐기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사각지대 복지 서비스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45년만에 자연 부화로 태어난 황새
예산 황새공원에서 자연 부화 방식으로 태어난 황새 새끼들(원안). 황새가 야생 상태에서 태어난 것은 지난 1971년 황새의 맥이 끊긴 지 45년 만에 처음으로, 이들 새끼는 지난 20~21일 부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광주시민 6명중 1명 대중교통 무료 이용

市, 노인·장애인·유공자에 ‘무임교통카드’ 도입

광주시민 6명 중 1명 정도는 돈을 내지 않고 일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른바 ‘무임 손님’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무임 교통카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카드 발급 대상자는 지난해 말 기준 시 전체인구의 16.3%에 해당하는 23만9000여명이다.

65세 이상 노인이 16만6000명, 장애인 6만8000명, 국가유공자 5300명이다.

발급 대상은 주민등록상 광주에 거주하

는 노인, 장애인, 유공자로 지하철 무료, 버스 유료(국가유공자는 버스도 무료) 등 운임체계가 적용되는 대상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돼 12월까지 도입될 예정이다.

광주 도시철도 1호선이 2004년 개통된 뒤 무임승차 대상자들은 역사 내 복합발매기에서 신분증을 이용해 1회용 우대권을 발급받아 사용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카드가 도입되면 신용카드, 신분증, 교통카드 등을 함께 소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시는 프로그램 개발과 카드 발급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고를 내 다음달까지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송상진 시 대중교통과장은 “특히 유공자들은 그동안 승차증명서를 제시하는 등 승차 과정에서 생긴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6개사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

2년간 6억 사업비 65% 지원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글로벌 강소기업’ 사업에 광주 6개 기업이 포함됐다. 광주시는 23일 현성테크노, 성일이노텍, 삼원산업사, 무진기연, 대경보스텍, 다원엔지니어링 등 지역 6개사가 글로벌 강소기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유망기업을 선정해 ‘월드 클래스 300’ 수준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다. 전국적으로 121개 기업이 선정됐다고 시

는 전했다.

선정 요건은 매출 100억~1000억원, 수출 비중 10% 이상, 3년 평균 연구개발 투자율 1% 이상 또는 5년 평균 매출 증가율 8% 이상 등이다.

선정된 기업은 연구개발 과제 추진 과정에서 최대 2년간 6억원 이내 사업비의 6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외마케팅 프로그램도 3년간 2억원 이내에서 사업비의 50~70% 지원 혜택이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레이저백내장

레이저 백내장 수술은 일반 백내장 수술보다 정확도와 안전성이 현저히 높은 최첨단 프리미엄 백내장 수술입니다. 3D OCT가 탑재된 펄토세컨레이저를 사용해 일반 백내장 수술보다 훨씬 빠르고 오차 없는 수술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무출혈 / 무통증 / 무봉합 / 무입원**이 가능하며 검사부터 수술까지 하루에 모든 것이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과: 스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신세계백화점 **백운광주안과**

법무법인 맥 설립인사

그동안 각자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 뜻을 모아 ‘법무법인 맥(脈)’의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반 소송업무(민사/형사/가사/행정 등) 뿐만 아니라 기업법률 자문분야 등에서도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를 신뢰하고 성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새로운 출발에도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 분야

- 민사/가사/행정 소송
- 형사소송/수사 대응
- 기업법률자문/기업회생·파산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 행정심판/조세심판/소청심사

구성원 변호사

	조재건 사법연수원 24기 전 순천지원 부장판사
	서정암 사법연수원 26기 전 광주고법 판사
	문방진 사법연수원 26기 전 장흥지원장
	노로 사법연수원 29기 전 광주지법 검사
	권오성 사법연수원 33기 전 광주지법 검사

소속 변호사

윤철호 (서울대 법학과, 사사45회)
박충배 (서울대 철학과, 변시 1회)
김경욱 (전남대 법학과, 변시 1회)
민양이 (경희대 정외과, 변시 3회)
정은혜 (연세대 법학과, 변시 3회)
류노엘 (조선대 법학과, 변시 4회)
정찬욱 (경향대, 변시 4회)

대표변호사 **조재건 서정암 문방진**
노로 권오성 올림

주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106 법무법인 맥 빌딩 · 전화 062)236-4000
순천분사무소 ▶ 전남 순천시 황지로 30, 거형빌딩 202호 · 전화 061)727-7099 · 팩스 061)721-4552